

광주지역 평화통일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분석*

강구섭(전남대학교 교수)

논문요약

이 논문은 광주지역 평화·통일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평화·통일교육 실행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광주지역의 공공분야, 학교, 사회 분야에서 실행되고 평화·통일교육의 현황을 분석했다. 또한 광주지역 평화·통일교육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효과적 실행을 위한 방안을 탐색했다. 연구 결과, 학교의 경우 평화·통일교육 내용의 제한, 전문 인력의 미비, 공공 분야는 정세의 영향에 따른 정책에 대한 관심 부족, 사회 분야에서는 체계적 실행 기반 부족, 시민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화·통일교육 실행방안 수립, 지역 차원의 환경 조성, 전문 인력 확보, 지역 차원의 물적 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평화·통일교육, 지역통일교육, 공공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

* 이 논문은 2021년 광주광역시 연구용역 과제(평화통일기반 조성과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서 필자가 참여한 영역의 연구 결과를 수정·보완해 작성하였음

I. 서론

교류 협력에 기반을 둔 남북한의 상호 공존을 넘어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방법으로서 평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통일 실현을 위한 과정 뿐 아니라 목표 자체로서 평화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분단 극복의 목적 뿐 아니라 전체 사회 및 개인의 안녕을 위한 수단으로서 평화 실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른 한편, 70년 이상 지속된 분단의 영향으로 통일, 북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한 상황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¹⁾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불안정한 국내외의 정세, 사회 내에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 등의 상황은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의 잦은 군사적 행위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욱 악화되어 통일, 남북 교류 자체에 대한 회의적 인식의 확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새롭게 시작된 윤석열 정부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긴장 고조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²⁾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드는 반면 부정적 인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개선하고 남북한이 상생할 수 있는 평화적 기반의 조성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통일을 위한 내적 기반으로서 통일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평화·통일교육의 실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중앙 및 지역 단위에서 평화·통일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연계한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각 지역의 특성, 분단 문제에 대한 경험과 그에 기반을 둔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 특화 평화·통일교육의

1) 김병연 외, “2021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55, 2022, p. 31.

2) “尹 文 대북 정책은 실패, 北 달래지 않겠다…경색국면 당분간 계속될 듯.” 『아시아 경제』 2022년 5월 24일.

수립 및 실행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는 통일, 북한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경험에 기반을 둔 평화·통일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대한 전기가 되었던 5·18 민주 항쟁이라는 정치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이 평화·통일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다. ‘5월에서 통일로’라는 표어가 보여주듯, 지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통일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대되어 평화·통일교육의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 분단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일정한 컨센서스 속에서 통일 문제가 다루지고 있다.⁴⁾ 다른 한편 통일 문제에 대한 지역의 우호적 분위기와 상이하게, 광주 지역에서 평화·통일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통일, 북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 경향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토대로서 광주지역의 평화·통일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의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광주지역의 평화·통일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통일교육 개관

통일교육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통일인식 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반 교육을 의미한다.⁵⁾ 70년 이상 지속된 분단으로 인

3) 김병연 외, “2021 통일의식조사”, p. 266.

4) 광주광역시, 『615 민족통일대축전 개최결과보고』, 광주광역시, 2006.

5) 통일부, 『2018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 통일부, 2018, pp. 21~22.

한 적대감을 해소하고 통일, 북한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토대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분단 상황에서 유발된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 통일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사회적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통일교육이 적극적으로 강조되고 있다.⁶⁾

통일교육은 남북 관계, 정권의 통일 문제에 대한 입장,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 등의 영향을 받으며 그 내용과 방법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었다. 분단 이후 국제적 냉전 상황에서 남북 간 대립이 첨예했던 1980년대 말까지 통일교육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 고취를 강조하는 멸공교육, 반공교육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주로 북한에 대한 적대 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이 교사가 주도하는 강의식 수업 통해 제시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남북한 체제 경쟁이 계속 되던 1980년 말 탈냉전, 동구권 붕괴의 흐름 속에서 통일교육은 안보의 측면과 통일의 필요성을 병행해 다루는 통일안보교육의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안보 의식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함께 민족의 동질성, 분단의 아픔 등 남북한 간의 통일의 필요성을 다루는 내용이 통일안보교육에서 다뤄졌다. 19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남북한 동질성 회복에 관한 내용이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제시되었다.⁷⁾ 남북한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는 남북한 평화,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 측면이 강조되면서 통일교육에서 북한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다루는 내용이 적극적으로 다뤄졌다.⁸⁾ 특히, 남북한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남북한 평화가 강조되면서 기존의 통일교육이 평화·통일교육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른

6) 황인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론』, 서울: 울력, 2016, p. 245.

7) 한만길 외,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연구원, 2000.

8) 박재용, “한국 역대정권의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6권 2호, 1999, p. 208.

한편, 1990년대 초중반 이후, 교육 개혁을 통해 학교 교육이 크게 변화하면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 측면에서 학습자 및 학교 특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를 통해 사진, 동영상 등의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의 통일교육이 활성화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남북 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안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이 변화하면서 북한 체제의 정치적 특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통일교육에서 강조되었다. 이후 남북한 간에 평화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한 간 차이에 대한 이해, 평화적 공존을 강조하는 내용이 강조되었고, 통일의 과정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갈등 해결 및 공존 능력의 배양 측면이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당위적 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에 기반한 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분단 이후부터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던 통일교육을 종합하면 대체로 국내외 정세, 남북한 관계 등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크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 북한 문제에 대한 정권의 입장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나 통일교육의 내용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통일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근원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2. 평화·통일교육 추진 체계

학교, 사회 등 전체 사회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은 통일부의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에 의거해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법적 기반인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해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방향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평화·통일교육의 실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⁹⁾ 이와 함께 영역별 평화·통일교육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자료 개발 등의 과제를 종합적

9) 통일부, 「2021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통일부, 2021. p. 189

으로 실행한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통일교육은 통일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연계 하에 각 학교급 단위에서 시행된다.¹⁰⁾ 통일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연계 속에서 이뤄지는 학교 단위의 평화·통일교육을 실질적으로 주관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통일부와 협업으로 실시하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이외에 자체 예산을 기반으로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수립해 지역 단위의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한다. 이러한 중앙 및 지역 단위의 평화·통일교육 계획에 기반해 학급 학교는 다양한 방식의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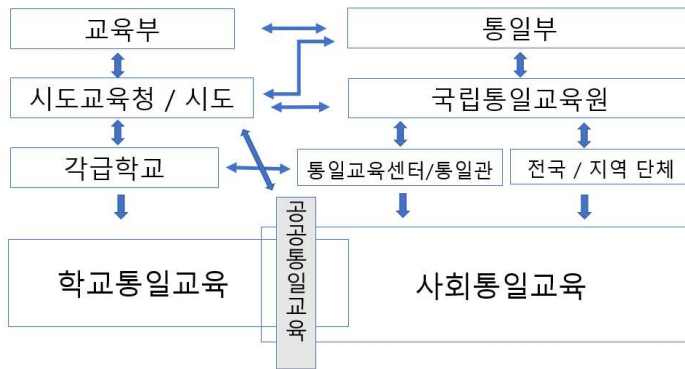
성인을 비롯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 평화·통일교육은 통일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통일교육 센터와 전국 및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통일교육 단체, 일반 단체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전국 및 지역 단위의 통일교육 단체들은 통일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공모를 통해 이뤄지는 예산 지원을 토대로 지역단위에서 단체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시행한다.

학교 및 사회 평화·통일교육과 함께 평화·통일교육의 한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공공 분야 평화·통일교육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 분야의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의미한다. 통일교육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체로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비롯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평화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방식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체계를 종합하면 평화·통일교육은 통일부를 비롯한 중앙 단위의 부처의 종합 계획 및 예산을 토대로 실행하는 가운데 각 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은 각각의 고유 예산을 토대로 수립한 전국 및 지역 단위의 계획 및 예산에 기반해 평화·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화·통일

10) 통일부, 「2022 통일백서, 통일부」, 2022. p. 23

교육의 실행 규모, 예산 등의 측면에서 제한적인 수준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¹¹⁾. 특히, 각 지역 단위에서 실행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실제 현황, 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상 및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통일,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지역의 정서 등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수준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실행 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는 전체 사회의 평화통일 인식 제고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특성을 반영한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평화통일 인식 조사, 평화·통일교육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역 단위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수립 및 과제 도출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관심에 부합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 통일교육 추진 체계

11) 통일부의 2021년 통일교육 예산은 175억여원으로 발표되었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평화·통일교육의 현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광주지역의 각 분야에서 평화·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면담 대상자는 광주지역의 공공분야, 학교, 시민단체에서 평화·통일교육의 기획, 실행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담당업무 경력은 2~20년까지 매우 다양했다. 심층면접은 분야별로 구분해 총 3회에 걸쳐 실시했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한 후 주면담자와 보조면담자가 참여하는 집단면접 방식으로 집단별로 2~3시간가량 이뤄졌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내용의 분석을 위해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양적 내용 분석이 내용의 빈도나 강도 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것과 달리 질적 내용분석에서는 전체 내용 요소의 맥락, 내포된 의미체계, 특수한 단일 사례 등 전체 내용에서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 내용을 분석한다.¹²⁾ 이를 통해 텍스트의 행간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나 주요 내용의 변화 양상을 심도있게 분석한다.

〈표 1〉 심층면담 참여 광주지역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개요

	구분	분야	경력	담당 업무
1	A1	공공분야	3년	- 평화·통일교육 기획 실행
2	A2	공공분야	5년	- 평화·통일교육 기획 실행
3	B1	학교	3년	- 고등학교 평화·통일교육 담당교사
4	B2	학교	9년	- 중학교 평화·통일교육 담당교사
5	B3	학교	2년	- 초등학교 평화·통일교육 담당교사
6	C1	시민단체	10년	- 민간단체 회원 대상 프로그램
7	C2	시민단체	11년	- 교류 협력 사업, 시민 프로그램
8	C3	시민단체	20년	- 민간단체 교류 협력 사업
9	C4	시민단체	9년	- 지역 통일교육 기관 운영

12) Mayring Philipp, *Einführung in die qualitative Sozialforschung: eine Anleitung zu qualitativen Denken*, Weinheim: Beltz Studium, 2002, p. 114.

III.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현황

1. 학교의 평화·통일교육

광주광역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통일부의 평화·통일교육 기본 계획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제반 사업은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평화·통일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 평화통일기반 구축 등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기반 조성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사업은 대체로 1) 학교교육과정 연계 평화·통일교육, 2) 체험형 프로그램, 3) 교원 역량강화, 4) 평화·통일교육 기반 구축 등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교육과정 연계 평화·통일교육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수업, 학생 활동 등의 형식으로 연간 10시간 내외로 구성된 평화·통일교육 시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주간을 계기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해 평화·통일교육 실행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은 북한사진 및 생활용품 전시, 박람회 등 교과 수업이나 교과 수업 이외의 학생 활동에서 북한, 통일 관련 정보와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단체의 체험형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험 형식으로 실행하는데 필요한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다. 교원 역량 강화에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교원 대상 특강, 평화·통일교육 연구회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화·통일교육 기반 구축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토대가 되는

13)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 광주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

교육 분야의 남북한 교류 협력과 관련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 운영체제 구축,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 등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광역시의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대체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가운데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나 체험 학습과 연계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교육청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평화·통일교육 이외에 시민단체, 중앙 및 지역 단위의 통일교육 단체에서 시행하는 평화·통일교육에 학생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학생 대상 평화·통일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양적 성과 측면에서 체험 중심 수업 380회, 58개교의 65개 동아리(1,360명 참여), 교원 직무 연수(30여명 참석)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¹⁴⁾

<표 2> 광주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제반 사업 개관

영역	주요 내용	대상
교육과정 연계 평화·통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연계 통일교육 - 통일교육주간 연계 계기교육 - 자치활동형 통일교육 	- 학생
체험형 평화·통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형 프로그램 - 이벤트형(박람회) 프로그램 -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강사단 운영 	- 학생
교원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대상 특강 - 평화·통일교육 직무연수 - 현장교원 평화·통일교육연구회 운영 	- 교사
평화·통일교육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운영체제 구축 -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원 - 유관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 단체, 기관

14)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 광주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

2. 공공 분야의 평화·통일교육

공공분야 평화·통일교육은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을 비롯한 공공 기관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으며 각 기관은 기관의 평화통일 계획을 토대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한다.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주광역시는 2011년도에 제정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토대로 평화·통일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단위의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하고 있다.¹⁵⁾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 사업은 기관 소속 구성원 대상 평화·통일교육 뿐 아니라 지역에서 이뤄지는 전체 평화·통일교육의 계획을 포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전체 내용은 1) 평화·통일교육의 실행, 2)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 3) 평화·통일교육 역량구축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각 영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평화·통일교육의 실행 영역에서는 공공 분야 평화·통일교육으로서 광주광역시 공무원 대상 평화·통일교육과 일반 시민 대상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은 대체로 특강 형식의 직접 교육과 원격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 등의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전체 평화·통일교육의 실행을 위해 지역 평화·통일교육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공공 분야 통일교육 대상자에 대한 직접 교육 이외에 지역 평화·통일교육 기반 조성 측면에서 지역의 평화·통일교육 인프라 체제 구축 사업, 지역의 평화통일 및 평화통일 교육 실태 조사, 인적 인프라 구축 등 지역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물리적, 인적 기반 구축과 관련된 과제가 시행되었다. 지역의 평화·통일교육 역량구축 사업에서는 지역의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외에 광주광역시에 소재해 있는 공공 기관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간 1시간의 통일교육을 실행하고 있다.¹⁷⁾

15)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 광주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

16) 김재기, “지역사회 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동북아논총』 제 64호, 2012.

광주광역시의 공공 평화·통일교육을 종합하면 대체로 내용 및 형식 측면에서 강의 형식의 평화·통일교육이 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성과 측면에서 185명의 공무원이 특강과 세미나에 참여하였고, 전체 4천여 명이 사이버통일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실행계획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2020년, 직접 혹은 공동으로 실행한 13개의 사업을 포함해 총 33개의 사업을 실행·지원하였다.¹⁸⁾ 예산 측면에서 2020년, 광주광역시의 예산 6억 9천 4백만 원이 소요되어 광주광역시의 전체 인구인 1,471,385명(2021년 기준)으로 환산할 때 1인당 평균 472원 가량의 예산이 평화·통일교육에 활용되었다. 광주광역시 보다 큰 규모의 타 광역시의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대체로 광주광역시 차원의 평화·통일교육은 상당히 협소한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⁹⁾

〈표 3〉 광주광역시 공공분야 평화·통일교육 사업 현황²⁰⁾

영역	주요 내용	비고
평화·통일교육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대상 통일교육(특강) - 공공기관 통일교육 지원 - 시민대상 공모사업 지원 - 사이버 통일교육 	-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 전략 수립 및 운영 - 지역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 통일교육 인적 인프라 운영 - 평화통일 인식조사 	
평화·통일교육 역량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 인력 연수 -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17) 광주광역시, 『2020년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통일교육 계획(안)』, 광주광역시청, 2020.

18) 광주광역시, 『2021년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시행계획』, 광주광역시청, 2021.

19) 부산광역시청,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부산광역시청, 2021. 부산시의 경우 인구 측면에서 광주광역시보다 3배 가량 큰 반면 평화·통일교육 예산은 3억 가량이 투입되었다.

2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평화통일 교육계획(안)』, 2018, p. 1; 광주광역시, 『공직자 대상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안)』, 2018.

3. 사회 평화·통일교육

사회 평화·통일교육은 통일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관과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전국단위 통일교육 단체, 지역 민간단체 등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공공분야의 재원을 근간으로 지역민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통일교육 단체들은 일반 시민의 통일,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목표로 하는 각종 평화·통일교육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²¹⁾

광주광역시에 소재해 있는 500여개의 민간사회 단체 가운데 대체로 17개의 단체가 평화통일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남북한 교류 협력 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 농업 지원, 의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의 전문 분야에서 통일, 북한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²²⁾ 이러한 가운데 각 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일반인 대상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²³⁾ 또한 광주 지역의 인권운동 단체 등과 같은 일부 단체는 통일 북한과 관련된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단체의 고유 사업을 실행하는 가운데 통일, 북한 관련 주제를 간접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²⁴⁾

광주 지역의 사회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을 분류하면 1) 일반인 참여 이벤트 프로그램, 2) 인식제고 캠페인 등의 대중 참여 프로그램, 3) 시민 및 학생 대상 특강, 4) 전문 인력 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인 참여 이벤트 프로그램에서는 걷기대회, 마라톤, 공모전, 캠페인 등과 같이 대체로 내용이나 형식의 측면에서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여가활동의 측면에서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주로 실행되고 있다.

21) 민족통일협의회, 『나의 작은 소원 제50회 한민족통일문화제전 수상 작품집』, 민족통일협의회, 2019.

22) 광주남북교류협의회, 『2020 광주광역시 시민사회단체 편람 자료(평화통일 단체)』,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2018.

23) 사단법인 우리민족, 『사단법인 우리민족 사업보고서』, 사단법인 우리민족, 2021.

24) 광주인권평화재단, 『청소년 모의인권 이사회 여덟 번째 2018.』, 광주인권평화재단, 2018, p. 22.

이러한 가운데 지역과 관련된 통일, 북한 문제와 관련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등과 같은 남북 관련 주요 기념일이나 각종 행사를 계기로 일반인의 통일,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의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하고 있다.²⁵⁾ 시민 대상 특강에서는 각 단체의 회원 가운데 일부가 참여하는 시민교실, 포럼과 같은 특강 형식의 강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퀴즈대회, 토론대회 등 광주지역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형식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이외에 통일부 등 중앙 부처나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전국 단위로 학생, 시민이 참여하는 문예 창작 대회나 토론대회 등의 방식으로 지역민 대상 평화·통일교육이 시행되고 있다(〈표 4〉 참조)

광주지역의 사회 평화·통일교육은 대체로 통일, 북한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 이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남북 교류 협력 등과 같이 평화, 통일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차적으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문위원이나 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회원(위원)을 대상으로 포럼, 특강이나 기타 이벤트 형식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단체의 회원이 아니거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프로그램 참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 2021.

〈표 4〉 민간단체의 평화·통일교육 현황²⁶⁾

영역	주요 내용	비고
일반인 참여 이벤트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7판문점 선언 3돌 기념 통일걷기 - 615 기념 걷기대회 - 통일 만보 걷기(오월에서 통일로) - 가족캠핑대회 	- 일반인 전체
인식제고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문구 공모전 - 평화통일캠페인 - 광주여성공동체 평화포럼 	- 전체
시민대상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평화통일 포럼 - 평화통일시대 시민교실 	- 공직자
학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한반도 평화청소년이사회) -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창작대회 - 대학생 평화통일 원탁회의 - 평화통일 골든벨 	- 학생
전문 인력(단체회원)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체험학습 - 통일시대 진로교육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위원 - 강사인력, 전문가
여성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관점의 북한 이해 	- 여성

26) 615 광주본부, 『2018년 615 광주본부 평화통일사업 결과 보고서』, 615 광주본부, 2018.

IV.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

1. 광주지역 평화·통일교육의 현황

(1) 평화·통일교육 실행 현황

○ 학교 교육과정 기반 실시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평화·통일교육을 범교과 주제로 연간 10시간의 평화·통일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기반해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대체로 통일교육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체제 속에서 시행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교과에서 4차시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평화·통일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이 외에 계기교육 등에서 평화·통일교육 내용이 다뤄졌다(초등학교 통일교육교사 B3). 중학교의 경우 전체 평화·통일교육의 현황이나 규모를 정량화해서 평가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체로 도덕과 수업과 평화·통일교육 시행되고 있으며 이외에 계기교육, 동아리 활동 등에서 이뤄졌다(중학교 통일교육교사 B2). 이러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상황은 고등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일부 교과를 중심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과운영이 이뤄지면서 평화·통일교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에서는 양적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고등학교 통일교육교사 B1).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한계를 다루기 위한 대안으로 평화·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문제 학생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주제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었다(고등학교 통일교육교사 B1). 심층면담에 참여한 학교통일교육 관계자들은 대체로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매우 제한적인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해서 학년 차원 다루고 있는데, 교육과정 내 내용이 제한되어 있어 접근에 한계가 있다.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사 B3)

○ 의무 참여자 대상 실시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공공 분야는 평화·통일교육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 토대 위에서 이뤄졌다. 이에 공공 분야의 평화·통일교육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분야 인력의 통일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시청, 교육청 등의 공공분야에서 수립한 자체 세부계획을 통해 실행되었다(공공분야 통일교육 관계자 A1). 이에 따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연간 1시간 내외의 평화·통일교육이 시행되었다. 시청, 교육청 등 뿐 아니라 다른 공공분야에서도 평화·통일교육 의무 실시 규정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 실시되었다. 대체로 각 기관 근무자의 승진연수, 일반연수 등의 다양한 연수에 관련 평화·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집합연수에 한계가 있어 주로 원격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체험형 연수도 계획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공공분야 통일교육 관계자 A1)

○ 자발적 참여자 대상 실시

학교나 공공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실행하는 평화·통일교육에 기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과 달리 사회 평화·통일교육은 개인의 의지와 관심에 기반한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사회 평화·통일교육은 특정 대상 집단이 아닌 학생, 성인 등 전체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다. 참여에 대한 강제나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른 참여가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학습자의 관심, 태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일반인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체로

각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이뤄졌다(시민단체 통일교육 관계자 C1). 즉, 캠페인 성격의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주로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 중심의 참여가 이뤄졌다(시민단체 통일교육 관계자 C4). 일부 사회 평화·통일교육 단체는 일반인 보다는 주로 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을 통해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통일교육 관계자 C2).

주로 단체에 소속 위원을 중심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한다. 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교육하고자 했으나 대단히 미비했다. (시민단체 통일교육 관계자 C1)

(2) 평화·통일교육의 실행 방식

○ 체험 기반 프로그램 운영

평화·통일교육의 실행 형식, 방법 측면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육과정에서 도출한 교과 내용을 재구성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적 요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했다. 이 외에 계기교육 형식으로 매년 이뤄지는 평화·통일교육주간을 활용한 평화·통일교육이 정기적으로 실행되었다(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사 B3). 이와 함께 지역 평화·통일교육 단체가 학교를 방문해 실시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적극 활용되었다. 중학교 단계에서도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일퀴즈, 1박2일 캠프 등 체험 형식의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제약으로 외부 활동이 학교 내 활동으로 바뀌면서 다소 줄어들었지만 학교 내 활동에서도 체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은 계속 강조되었다(중학교 통일교육교사 B2).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형식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중학교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을 민주시

민교육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교과를 연계하는 형식의 평화·통일교육이 실행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제한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학술제에서 부스 운영, 토론대회 등 학생의 직접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또한 역사 기행 등의 형식을 통해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평화교육 측면과 연계된 활동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평화·통일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등학교 통일교육 교사 B1).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 프로그램 짜고 실행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중학교 통일교육 교사 B2)

○ 광범위한 강의 형식 프로그램 운영

학교 평화·통일교육에서 체험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이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과 다소 대조적으로 학교 밖의 평화·통일교육에서는 강의 형식의 평화·통일교육이 계속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대표적으로 공공 분야 평화·통일교육의 경우, 단기간에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의 강사 초빙 방식의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었다(공공기관 통일교육 담당자 A1).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프로그램 형식의 평화·통일교육이 크게 확대되면서 원격 콘텐츠를 활용하는 형식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평화·통일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강의 운영의 부담, 참가자 확보 등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콘텐츠를 활용한 평화·통일교육이 확대된 결과로 평가되었다(공공기관 통일교육 담당자 A2). 이처럼 공공분야에서는 일부 대상이 참여하는 체험 형식의 평화·통일교육 이외에는 대체로 강의 형식의 평화통일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었고, 사회 평화·통일교육 분야에서도 특강 프로그램 형식의 평화·통일교육이 빈번히 실행되었다.

통일교육 1시간 의무연수 추진하고 있는데 집합연수로 1시간 목표 채우는 것보다 효과성을 고려해 원격연수를 권장하고 있다. (공공분야 통일교육 관계자 A2)

2. 평화·통일교육 실행에서의 문제점

(1) 평화·통일교육 실행의 문제점

○ 교육과정 내용의 한계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경우, 내용의 기반이 되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평화·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교육과정에 기반해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초등학교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교육과정의 범교과 주제영역으로 평화·통일교육이 다뤄지면서 광주교육청은 연간 10시간의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하는데 한계가 나타났다(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사 B3). 교사의 입장에서 실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하는 것에서 큰 부담을 느꼈고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내용을 다뤘다. 교육과정 내용의 한계는 중학교에서도 나타나 범교과 주제로 다뤄야 하는 다른 내용들이 많은 상황에서 평화·통일교육은 매우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중학교 통일교육 교사 B2). 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 윤리, 한국지리, 역사 등의 교과에서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특히 관련 내용이 시험 등의 평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교과 수업에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평화·통일교육이 교과교육과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통일교육을 따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사 B3)

○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부족

평화·통일교육 시행에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로 평화·통일교육을 시행하는 인력의 전문성 부족 측면이 지적되었다.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가운데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많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사가 계기교육 등에서 평화·통일교육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고등학교 통일교육 교사 B1). 또한 통일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인사 이동으로 학교를 옮기게 되면 더 이상 평화·통일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아 평화·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실행되어도 교사의 참여 수준은 높지 않았다(공공분야 통일교육 관계자 A2).

교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소수의 평화·통일교육에 열정적인 교사들이 떠나면 다시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고등학교 통일교육 교사 B1)

○ 이벤트 형식 프로그램의 한계

평화·통일교육 시행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유발을 위해 이벤트 형식의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이것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에 있었다. 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에서 학생의 관심을 유발하게 위해 다양한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으나 일회성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가지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학생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회성 행사나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등학교 통일교육 교사 B1). 이러한 경향은 사회통일교육에서도 나타나 체험, 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외유성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투입되는 비용 및 시간 대비 실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놀러간다’는 인식이 강하다. (민간단체 통일교육 관계자 C1)

○ 프로그램 개발 측면의 한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하는 사회 평화·통일교육 분야에서는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적 예산을 기반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양적 참여 측면이 예산 확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의 개발 보다는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다뤄지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의 성과나 평가에 대한 평가체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실행되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민간단체 통일교육 관계자 C2).

성과에 따라 예산확보가 이뤄지고,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없다 보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힘들다. (민간단체 통일교육 관계자 C1)

(2) 평화·통일교육을 제약하는 환경 요인 인식

○ 정치적 편향 시비에 대한 우려

평화·통일교육의 주 내용인 북한에 대해 다루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 시비에 대한 우려가 평화·통일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평화·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은 즉,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북한을 다루는 가운데 ‘친북’ 등으로 오인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정치적 성향으로 공격당하거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중학교 통일교육 담당교사 B2). 결국, 교사들은 교안을 작성하거나 수업에서 문제가 없는지 자기검열을 하고 ‘북한 편들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비판이나 논쟁을 피하기 위해 교과서에 제시된 당위적 성격의 내용을 소극적 혹은 피상적으로 다루는 상황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보다 교과서에 제시된 당위적 내용을 중심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면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흥미가 더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 뿐 아니 사회 평화·통일교육에서도 나타났다(민간단체 통일교육 관계자 C2).

정치 편향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호받는 장치 없이 통일교육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다. (민간단체 통일교육 관계자 C3)

○ 평화통일에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광주지역 평화·통일교육 전문가들은 남북한 정세의 잦은 변화에 따른 사회 분위기의 영향이 평화·통일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남북한 간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된 경우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평화·통일교육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공공분야 통일교육 관계자 A1).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공공분야에서 강하게 나타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업무에 대한 관심이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통일교육 관련 업무가 정책 순위에서 후순위 과제로 인식되면서 지속적인 업무 수행에 제약이 되었다.

주변 정세와 사회 분위기에 많이 휘둘리면서 사명감을 지속적으로 갖기 어렵다. (공공분야 통일교육 관계자 A1)

○ 잦은 변화에 따른 연속성 미비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부재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평화·통일교육 사업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실행되는데 있어서 큰 제약으로 작용했다. 즉, 평화통일,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가 공공분야에서 평화·통일교육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과 재원의 비중을 축소시키는 경향을 가져왔다(공공분야 통일교육 관계자 A1).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통일교육 업무는 더욱 기피업무로 인식되어 담당자가 빈번히 교체되고 평화·통일교육이 더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면서 체계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시행한데 있어서 한계로 작용했다. 이런 경향은 공공 예산을 토대로 운영되는 사회 평화·통일교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업무로 볼 때 소외되고 보람도 느끼기 어려운 기피업무로 인식되면서 지속적 역량 축적이 어렵다. 결국 담당자가 자주 바뀌게 된다. (공공분야 통일교육 관계자 A1)

○ 참여자 확보의 한계

평화·통일교육의 실행에서 직면하는 다른 문제는 평화·통일교육 참여자 확보에 있었다. 개인의 관심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참여자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를 제외한 전체 주민은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참여자의 저변이 확대되기보다 기존 참여자 대상 평화·통일교육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프로그램의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민들의 관심을 확대시키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다. 일부 층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기존 참여 시민들이 계속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공분야 평화·통일교육 관계자 A1)

3. 평화·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방안

(1) 지역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용 체계 개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 내용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 체계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과정 내의 제한된 내용을 토대로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적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의 평화·통일교육이 유기적 연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선형 교육과정의 특성처럼 통일교육도 전체 교육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현재 2015교육과정에는 통일관련 단원이 6학년 도덕 4차시가 전부이고 다른 학년에는 없다.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사 B3)

○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공공 및 사회 평화·통일교육의 개선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의 정형화된 프로그램의 반복적 실시가 아닌 지역의 상황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광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중앙 단위에서 기획·실행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이 광주지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5.18 계기교육과 동일한 기간에 운영되면서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위한 방안 수립을 통해 지역의 역사성,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지역차원의 평화통일 체험 코스 개발이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과도 공유될 수 있다. (민간단체 통일교육 관계자 C2)

(2) 지역 평화·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 전문 인력의 지속적 양성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의 경우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많지 않은 반면, 평화·통일교육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단기間に 양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장기적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과정 단계에서부터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활동하고 있는 강사에 대한 평가, 재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통일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고등학교 통일교육 교사 B3)

○ 지역 평화·통일교육 거점 구축

지역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지역의 평화·통일교육 거점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체험에 기반을 둔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화·통일교육의 시행을 위해 메타버스, AI 등의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평화·통일교육의 시행을 위한 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 거점의 구축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평화·통일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 접경 지역과의 거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언급되면서 지역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평화·통일교육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체험학습 거점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에서 체험학습이 매우 효과적이데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녹아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사 B3)

○ 지역 기관, 단체의 유기적 연계 체제 구축

지역 평화·통일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평화·통일교육 관계 기관 간의 연계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계자는 광주 지역이 가지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전문성이 학교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자원의 연계가 요구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정보가 적절히 공유되어 학교 내에서 잘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단체 측면에서도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가 요구되었다. 즉, 단체 간 효과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참가자 확보 등의 전체 과정에서 지역 역량이 체계적으로 결집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역사회 통일교육기관의 유기적 연계와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밖 통일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통일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사 B3)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광주지역의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광주 지역의 평화·통일교육 현황을 학교, 공공, 사회 영역으로 나눠 분석하고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 평화·통일교육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관련 내용을 기반으로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의 평화·통일교육 내용의 제한,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공분야에서는 남북한 정세, 지역 사회의 영향 속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고려되지 않고 후순위 과제로 인식되면서 체계적으로 실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 영역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데 필요한 기반의 미비,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참여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주 지역의 평화·통일교육이 보다 내

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통일,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현황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화·통일교육의 실행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실제 역량을 갖추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간의 갈등과 긴장 상황이 강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평화·통일교육이 평화와 협력을 위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지역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 지역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및 평화·통일교육의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세부 목표 및 내용, 실행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 및 지역 단위에서 수립된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토대로 평화통일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반해 수립된 내용을 토대로 시행되기보다 전체적으로 정형화된 사업이 시행되면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참여 현황, 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시행되면서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평화·통일교육을 주관하는 지자체, 교육청 등의 공공 기관은 우선, 평화·통일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는데 필요한 물적 기반 확보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전문기관,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종합 계획의 수립, 시행, 관리가 필요하다. 즉, 지역 구성원의 평화통일,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참여 경험 수준, 관심 내용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교육과정과의 체계적 연계 속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토대로 실행될 수 있게 내용을 계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평화·통일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광주 지역 평화·통일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저변에 있는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무관심 등이 학교, 사회 등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평화·통일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 시비 등의 부담감이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일, 평화 문제에 대한 당위적 차원의 접근을 넘어 개방적 입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차원의 통일,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평화·통일교육의 내용, 형식에 대한 규정을 통해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지역 차원의 공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 환경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평화·통일교육 인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토대로서 지역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연수, 자격 과정을 통해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전문성을 인정받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학위 혹은 재교육 과정으로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신설·운영함으로써 참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격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되어 학교 및 공공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물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분단 문제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접경 지역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광주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평화·통일교육 참여자의 관심과 흥미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 평화·통일교육 거점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 및 일반인 등 전체 지역 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 평화통일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제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평화·통일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가운데 지역에서 평화통일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는 거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하는 제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평화·통일교육 실행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평화·통일교육 분야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전문성이 학교 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류 협력 등의 경험을 통해 통일, 북한 문제에 실제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민간단체나 기관이 교수 학습 방법,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교육 실천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 교사 단체와 연계해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및 참여 등의 전체 과정에서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전체 평화·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평화·통일교육이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 구성원의 평화·통일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통일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시민의 참여를 넘어 다양한 계층구성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일상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세대별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흥미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평화·통일교육이 보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시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중앙 및 지역 단위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 평화·통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 전남 지역 내의 평화·통일교육 기관 뿐 아니라 접경지역, 기타 지역 기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구성원이 광주 지역을 넘어 전체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평화·통일교육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국에 소재해 있는 다양한 기관 및 평화·통일교육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병연 외, “2021 통일의식조사”, 『통일학연구』 55, 2022.
- 김재기, “지역사회 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동북아논총』 제 64호, 2012.
- 광주광역시, 『2021년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시행계획』, 광주광역시청, 2021.
- 광주광역시, 『2020년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통일교육 계획(안)』, 광주광역시청, 2020.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2018 평화·통일교육계획』, 광주광역시청, 2018.
- 광주광역시, 『615 민족통일대추전 개최결과보고』, 광주광역시, 2006.
- 광주광역시, 『공직자 대상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안)』, 2018.
- 광주남북교류협의회, 『2020 광주광역시 시민사회단체 편람 자료(평화통일 단체)』,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2018.
-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2018 대북사업계획서』,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2018.
-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 광주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
- 광주인권평화재단, 『청소년 모의인권 이사회 여덟 번째 2018』 광주인권평화재단, 2018.
- 민족통일협의회, 『나의 작은 소원 제50회 한민족통일문화제전 수상 작품집』, 민족통일협의회, 201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 202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 사업계획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 2021.
- 박채용, “한국 역대정권의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16권 2호, 1999.
- 사단법인 우리민족, 『사단법인 우리민족 사업보고서』, 사단법인 우리민족, 2021.
- 통일부, 『2022 통일백서』, 통일부, 2022.
- 통일부, 『2018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 통일부, 2018.
- 통일부, 『2021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통일부, 2021.
- 황인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론』, 서울: 울력, 2016.
- 한만길 외,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연구원, 2000.
- 615광주본부, 『2018년 615 광주본부 평화통일 사업 결과 보고서』, 615광주본부, 2018.
- Mayring Philipp, *Einführung in die qualitative Sozialforschung: eine Anleitung zu qualitativen Denken*, Weinheim: Beltz Studium, 2002.
- “尹 文 대북 정책은 실패, 北 달래지 않겠다·경색국면 당분간 계속될 듯.” 『아시아 경제』 2022년 5월 24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52411515471908> (검색일:2022.08.20)

Abstract

A Study on Peace Unification Education in Gwangju Province

Gu Sup Kang(Professor, Department of Ethic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Peace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 in Gwangju Province and to obtain some policy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on Peace Unification Education which is based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Gwangju Province.

In this purpose, it primarily scrutinizes the current state of Peace Unification Education in school sectors, public sectors and social sectors through literary analysis.

In addition, it is conducted in semi-structured interview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experts dealing with Peace Unification Education in Gwangju province.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at Peace Unification Education in School Sectors has some fallacies noticed in its contents and misconceptions of the experts. Public sectors show lack of interest for Peace Unification Education due to changes in situational impacts. In the social field, there are limitation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of Peace Unification Education owing to the lack of systematic perpetration based on civil Interest.

Respectively,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development of Peace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 based on its regional characteristics, production of local atmosphere, improvement of experts and building a regional foundation should be handled well for effective and firm implementation of Peace Unification Education.

Keywords: Peace Unification Education,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Public Unification Education,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투고일: 2022년 06월 29일, 심사일: 2022년 07월 28일, 게재확정일: 2022년 08월 23일